

## 벌침

한 가족이 맑은 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.  
근데 갑자기 크고 검은 벌이 열린 창문사이로 들어와서 차 안을 날아 다녔습니다.

어린 딸은 뒷자리에 숨어있었습니다.  
벌에 쏘이면 한 시간 안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.  
아빠를 부르며 아이는 소리를 질렀습니다.  
아버지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뒤로 손을 뺐었습니다.

그리고 손으로 벌을 낚아챘습니다. 아버지는 벌이 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손을 꼭 쥐고  
있었습니다.  
그리고 벌이 그의 손을 쓴 후에야 벌을 놓아 주었습니다.

그 벌은 다시 차 안을 날아다녔고 어린 딸은 또 공포에 떨었습니다.  
“아빠, 벌이 날 쏠려고 그래요” 아이가 소리치자 이번에 아버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.  
“아이야, 아니다 내 손을 보라!” 벌침은 아버지의 손바닥에 꽂혀 있었습니다.


바울은 고전 15:55에서 “사망아,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?  
사망아,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?”라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.

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 
“내손을 보라.”

그 분은 사탄의 찔림, 죽음의 찔림, 죄의 찔림, 거짓의 찔림, 무가치한 정욕의 찔림을 당하  
셨습니다.  
예수님은 그의 손에 이 모든 침을 가지고 계십니다.  
여러분이 못 자국이 있는 예수님의 손을 볼 때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견딘 아픔을 깨닫게  
될 것입니다.

그 분은 침을 잃어버린 벌처럼 사탄을 무력하게 하셨습니다.  
사탄은 웅웅거리는 소리만 내고 있을 뿐입니다.  
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승리입니다.

<화끈한 예화!/웨인라이스>

.....여러분의 가장 깊은 한숨을 아시는 그분을 만나십시오. 「더 깊은 묵상」 제공